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야 공방 격화

새누리, 내일 의총 “유지” 당론 확정... ‘여론몰이’도 민주, 폐지 거듭 촉구... 금주 대규모 규탄 집회 나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번 주중 지난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백지화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정치권에 공방이 가속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주 이견에도 불구하고, 위헌 논란 등 명분을 내세워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기초선거 공천제를 유지하는 한편 상향식 공천의 취지를 살린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내

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에 정우택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시 부작용으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의 난립 ▲현역·토호 세력 유리 ▲내전(內鬪) 가능성 등을 열거했다. 기초선거 공천제 유지가 대선공약 폐기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선 공약이니 지키느냐 마느냐의 ‘0.X’ 여부만 으로 논란을 벌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공천제를 없애면 지역 토호세력이나 현역 단체장에 유리해지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천제를 폐지

하려면 현역은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기초선거 공천제를 폐지하면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의 난립으로 극심한 갈등이 우려되고 돈선거 부활과 사회적 약자의 출마 원천봉쇄 등 엄청난 부작용이 볼 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사 공약을 했어도 큰 부작용이 예상되면 대안을 찾고 국민께 솔직히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기 있는 정치이자 책임정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며 여론을 거듭 압박했다. 특히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집회도 개최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광주 양동시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겠다는 박 대통령이 약속을 강그리 뒤엎고 있다”며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인 정당공천 폐지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번 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거듭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12월3일 여야 합의가 헌신적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상황에서 기초공천 폐지 백지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1일 부산에서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백지화’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부산시장과 경남도당이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영남권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이 주로 참석하는 가운데 김 대표도 직접 내려가 힘을 보태 예정이다. 24일에는 전국 기초단체장이 국회에 모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기로 했다.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새누리당 이재오(오른쪽부터), 서정원, 김무성 의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이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당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연남뉴스

“서울시장·대선후보 양보했다 이번엔 내가 양보받을 차례다”

안철수 의원 발언 놓고 논란

박원순 “시민에 도움되면 양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0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서울시장 후보와 대선 후보 자리를 두 차례 양보한 것과 관련, “이번에는 양보받을 차례”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주요 후보직을 다시 양보할 뜻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서울시장 등 주요지역의 후보직을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서 공격하고 나섰다. 윤 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보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노골적인 선거연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표를 한 곳으로 모으자는 것이 새 정치인지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예민한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이간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며 보수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제가 백 번이라도 양보해야 된다”면서 “시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 역시 광주 방문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더 좋은 후보를 내서 새누리당을 이겨야 한다는 뜻 아니겠는가”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박원순 전 원내대표는 “본인이 서울시장에 나오면서 양보하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박 시장은 민주당원인데 당과 당으로서 얘기해야지 개인 대 개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만 봐도 정치적 감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안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결연한 의지를 보여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쯤 저 혼자서 아니겠느냐”며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과 함께 일하고 있고 저도 구성원의 일원이어서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 연대도 안 한다는 판에 (민주당에) 양보하라는 말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더는 우리가 양보하기 어렵다는 뜻을 강하게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jpkpark@kwangju.co.kr

지방대학 출신 취업 확대 대토론회

이용섭·박해자 의원 공동 주최...내일 조선대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발전 육성법’ 통과에 따라 지방대학 출신 취업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조선대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이용섭(광주광산) 의원과 박해자(서구 갑)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및 국회의 노력과 보완점’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배성근 교육부 대학지원관, 이종범 조선대 기초과학대학장, 김한배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김국민 조선대 총학생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대학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등에



박해자 의원

이용섭 의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발전 육성법’은 이용섭 의원이 2012년 11월에 발의한 ‘지방대학 발전 지원 특별법’과 박해자 의원이 지난해 6월에 발의한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정리된 법안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재오 “정당공천 폐지는 대국민 약속”

여 지도부에 폐지 촉구

새누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야가 공약한 기초자치 공천 폐지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정책을 말로만 하지 말고 공약한 대로 기초자치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을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기초공천 폐지에 찬성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음날인 20일 당내에 파장이 일었다. 이 같은 발언은 주류 친박계 지도부의 움직임에 대해 비주류 친이계의 좌장격이었던 이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어 “당 지도부는 현행 제도를 내심 확정해놓은 것 같다. 여야 협상을 질질 끌다가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할 것”이라며 “국민은 그 속임수를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혜훈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중진 의원께서 지도부가 공천 폐지 약속을 어기려고 속임수를 쓴다고 비판했는데 유감”이라며 ‘약속을 어기려고 속임수를 쓴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고, (대안으로 검토하는) 완전국민경선제는 약속을 더 어기는 게 아니라 더 잘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jpkpark@

윤봉근 “광주교육 새롭게 디자인하겠다”

내달 의원직 사퇴...광주교육감 출마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은 20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의 실력, 최고의 인성교육, 최고의 교육복지 실현을 중시에 놓고 광주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이념적 진보가 아닌 합리적 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출신인 윤 전 의장은 “지금의 광주교육은 불통·불신·불만이 팽배해 있고 정책일관성 결여, 교실력 부재,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 낮은 청렴도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수월성교육과 평등교육의 조화, 무상교육 전면 확대, 학교별 브랜드화로 개



성있는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대다수 시 민사회에서는 더 이상 현 체제로는 진보교육감의 당선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합리적 진보 시민교육감의 당선을 위해서는 장항구 교육감이 불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의장은 다음달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끝으로 2월14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전대상대 1분

등기완료, 공실없음 월수익 420만원 5000수익 최고위치,전면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6억3천 (보증금 3천, 용 1억)

★전대용방지구모아미래도APT코너

신축 4층 룠 19개(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전대전문 원룸

룸 15개 월수익 500,매가 6억3

전대에술대 2분 코너앞

룸 13개(4층 고급주택 40평 1개) 매가 7억8천

즉시입주가 최고위치 월수익 455만원(4층주택 사용가)

★수완지구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1층임대(18평) 보2천 월110만
3층매매(85평) 3억2천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모아엘가 상가 3층	
3층매매(62평) 2억8천	3층임대(62평) 보5천 월150만
세계로 병원 대로면	학원,병원, 사무실 기타적합

쌍촌동운천역1분 원룸형 주택 11평 매3500/13평 매4500

신한공인중개사 ☎010-6670-9800

경매전문

경매 투자 하실 분!

(공동투자가능)

(상가, APT, 원룸, 토지, 근생, 기타)

권리분석·입찰

매매·임대·자금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 해드립니다.

◎경매 직원 구함◎

가족처럼 함께 하실 분

주)대신경매 ☎062-527-7600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을 대로면 149평 은행 2억 감정 3억6천 매도2억9천
- 매월동 저수지에서 대동고-건강랜드 방향 2차선 도로 자연 녹지 5484㎡(1661) 교환-분할 매매가능 평당 200만원
- 급매, 지하철 쌍촌역 사거리 대로면 준주거 377㎡(111평)병원·사육·학원·자동차 정비시설 등 적합 7억6천
- 쌍촌동 2중 주거지 674㎡(204) 다가구, 다세대 적합 매입가에 매도 3억1500만원 투자에도 적합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천 수익 9억6천
- 식당건물 급매 금남로3가 부근 소방도로 접 대지 149평 건평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천 법인이전 7억6천
- 신축 쓰리룸 건물 북구 우산동 대지 516㎡ 12세대 8억9천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5천만원
- 모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충6억2천 매도 8억3천
- 생활적합 건물 함평군 월아면 땅 2657㎡(804)건물 2동 57평 은행 2억 기도원 할수 있는 산이 있는 주택과 교환가능 5억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천 월900만원 매도9억6천
- 전원주택지 청풍동 777㎡(235)1억5천
- 북동 상업지 992㎡(300)오피스텔, 생활주택 등 다용도 8억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오피스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천.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초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에어컨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잡종지(8,000㎡) 임야(7,000㎡)

매매가격 3억5천만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